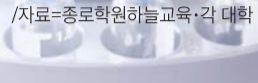


# 자격기준 낮춘 약대, 올 경쟁률 6.33대 1 '고공행진'

(전국 34개 약대 정시 경쟁률 평균)

하락세 경쟁률, 평년 수준으로 회복  
올해 PEET 실제 응시자 소폭 감소  
치의과학대·덕성여대·삼육대 치열  
경희대·아주대·가천대 경쟁률 ↓

대학명	정원	지원자	경쟁률	비고(2018)
치의과학대	30	785	26.17	23.63
덕성여대	80	959	11.99	4.51
삼육대	30	351	11.70	10.03
고려대	30	288	9.60	9.63
단국대	30	235	7.83	6.43
경희대	40	253	6.33	7.13
아주대	30	173	5.77	6.33
가천대	30	165	5.50	6.63
연세대	30	156	5.20	7.00
가톨릭대	30	154	5.13	7.13



/자료=종로학원하늘교육·각 대학

당초 예상과 달리 올해 약학대학 입학  
평균 경쟁률이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  
EET) 응시자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PEET  
성적 등 자격기준을 낮춘 대학 위주로  
경쟁이 치열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지난 14~16일 마  
감한 2019학년도 전국 34개 약학대학 정  
시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원내 지원  
경쟁률이 평균 6.33대 1로, 전년도 5.92대  
1보다 상승했다. 서울대 약대는 올해 경  
쟁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대학별 경쟁률을 보면, 치의과학대가  
30명 모집에 785명이 몰려 26.17대 1(전년  
23.63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어 덕성여대가 11.99대 1로 전년(4.51대  
1) 대비 경쟁률이 큰 폭으로 뛰었고, 삼육  
대(11.70대 1, 전년 10.03대 1)가 10대 1 이

상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수도권 약대 중에서는 고려대  
(9.60대 1), 단국대(7.83대 1)가 전국 평균  
경쟁률을 상회했고, 경희대(6.33대 1), 아  
주대(5.77대 1), 가천대(5.50대 1), 연세대  
(5.20대 1), 가톨릭대(5.13대 1), 이화여대  
(4.83대 1), 숙명여대(4.71대 1) 순으로 경  
쟁률이 높았다.

지방 소재 약대의 경우 인제대(9.87대  
1), 원광대(8.90대 1), 부산대(7.07대 1),  
우석대(6.85대 1), 대구가톨릭대(6.58대  
1), 목포대(6.53대 1), 계명대(6.37대 1)  
순으로 전국 평균 경쟁률보다 높았다.

올해 PEET 실제 응시자는 1만4892명  
으로 전년도 1만5107명보다 소폭 감소(-  
215명)해 당초 약대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하락하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오종은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전년도엔 약대들이 정량평가 강화에 따  
라 이례적으로 경쟁률이 낮게 나왔다”면서  
“올해는 덕성여대, 숙명여대 등이 PE  
ET 반영 비중을 낮췄고, 치의과학대의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1단계 전형에서  
PEET 성적을 반영하지 않아 학생들이  
과감하게 약대 지원을 해 경쟁률이 상승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약대 경쟁률은 지난 2011년 7.34대 1에  
서 2012년 6.58대 1로 하락한 뒤 매년 6대  
1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5.92대 1(서울  
대 제외 34개교 기준)로 크게 하락했으  
나, 올해 다시 이전 수준을 회복한 셈이  
다.

특히 덕성여대의 경우 올해 PEET 성  
적 반영 비율을 전년도 60%에서 올해  
30%로 크게 낮춘 결과 경쟁률이 크게 뛰  
었다. 덕성여대는 전년도 361명이 지원해  
4.51대 1을 기록했다가 올해 959명이 지  
원 경쟁률이 두 배 이상 크게 상승했다.  
덕성여대 경쟁률 상승은 전체 약대 경쟁  
률 상승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매년 경쟁률이 가장 높은 치의과학대  
의 경우 1단계 전형(모집인원의 4배수 선  
발, 대학성적 40 + 서류평가 40 + 영어성  
적 20)에서 PEET 성적을 반영하지 않아  
PEET 성적 중위권 이하 학생들이 2단계  
심층면접에서 역전을 노리고 대거 지원  
하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경쟁률이 상승한 숙명여대  
도 올해 PEET 반영 점수가 감소하고, 면  
접도 과제 수행(인문 문항)과 일반면접으  
로 바뀌면서 화학과 생물 문항 풀이 폐지  
폐지에 따라 지원자가 증가한 것으로 파

악됐다.

대학별로 보면 34개 약대 중 중앙대, 숙  
명여대, 덕성여대 등 16개교 경쟁률은 지  
난해 대비 상승한 반면, 경희대와 이화여  
대 등 16개교는 경쟁률이 하락했다. 경성  
대와 충북대 2곳은 전년도와 동일한 경쟁  
률을 보였다.

대학들은 오는 12월 말까지 우선선발  
과 1단계 전형 합격자를 발표하고, 면접  
고사는 각 대학, 모집군별로 가군은 1월  
초순까지, 나군은 1월 중순까지 치러지고  
최종 합격자는 1월 중순 이후 대학별로  
발표된다.

한편 지난 7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에 따라, 현행 편입학방식의 약학대학 입  
시는 공식적으로 2021학년도까지 진행  
된다. 현재 중3이 대입을 치르는 2022학  
년도부터 현행 '2+4년제'와 고3 신입생  
대상 '통합 6년제' 중 대학 자율로 개편될  
예정이다. 다만 약대 인력 수급을 위해  
2022학년도 통합 6년제로 전환하는 대학  
은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 학생 선발  
시 2+4년제 방식의 학생 선발 병행이 가  
능해 약대 편입학은 2023학년도까지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서울 주요 대학들의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치러진 17일 오전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에 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논술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건국대

## 건국대 논술 2만명 응시... 43.47대 1

'불수능' 영향으로 경쟁률 상승

건국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에 2만  
여명이 응시해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크  
게 상승했다. 건국대가 올해 논술을 수능  
이후 치른 것이 경쟁률 상승 요인으로 꼽  
힌다. 특히 올해 수능 국어와 수학 등 주  
요 과목이 어렵게 출제돼 수시모집 대학  
별고사 지원자가 증가한 것으로도 분석  
된다.

18일 건국대에 따르면 전날(17일) 치른  
2019학년도 수시모집 KU논술우수자전

형에는 465명 모집에 2만213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43.47대 1을 기록했다. 이는  
건국대가 수능 이전 논술을 치른 지난해  
논술 경쟁률 34.92대 1(465명 모집, 1만  
6236명 지원)에서 크게 상승한 결과다.

건국대 KU논술우수자전형은 논술고  
사 성적 60%와 학생부(교과)40%를 일괄  
합산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수능최저학  
력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논술 응시자  
는 인문계 6403명, 자연계는 1만3810명이  
응시했다.

/한용수 기자

## 서울시교육청 중학생 크리에이터 진로 돕는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22일까지 중학  
교 3학년 200명을 대상으로 '꿈넘(NUM)  
꿈 1인 크리에이터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꿈NUM꿈'이란 학생들이 가졌던 꿈  
을 신나는(Nice) 학교생활을 통해 공유하  
고 독특한(Unique) 자신만의 진로설계  
로 기적(Miracle)을 만들어 꿈 너머의 진  
정한 꿈의 완성을 이루는 서울진로교육  
비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인 방송 크리에이터

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반영해 미디어  
콘텐츠 기획·제작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미디어 창작에 대한 이해와 제작 능력을  
길러 미디어 콘텐츠 분야 진로설계를 돕  
는다는 계획이다.

1인 크리에이터 진로체험은 서울산업  
진흥원 S-PLEX 센터에서 운영되고, 학  
생들의 관심분야를 고려해 멘토 1인당 8  
명 내외의 학생이 실제 콘텐츠 제작을 체  
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

## “책 보단 취준”... 독서실된 대학도서관

잡코리아 대학생 2096명 설문  
공부·과제·구직준비 순위권

대학생들이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유가  
책을 읽거나 빌리기보다는 학점 관리를  
위한 공부나 취업 준비를 위한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알바몬이 잡코리아와 함께 대학  
생 2096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현황  
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들이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복  
수응답) 1위와 2위에 나란히 '학점 관리를  
위한 공부' (52.6%), '과제, 리포트 작성'  
(52.1%)이 꼽혀 학점과 관련한 공부를 위  
해 도서관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도서관을 찾는 이유 3위는  
'도서 대여' (45.0%), '독서' (33.1%), '자  
료조사' (25.9%) 순이었고, '공시 준비 등

취업준비를 위한 공부' (11.1%)를 위해 도  
서관을 이용한다는 대학생도 10명 중 1명  
꼴이었다. 이밖에 '구내식당, 시청각실  
등 도서관 부대시설 이용' (6.6%), '도서  
관 운영 프로그램 이용' (2.2%) 등의 응답  
도 있었다.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면, 도서관은 '온  
갖 종류의 도서, 문서, 기록, 출판물 따위  
의 자료를 모아 두고 일반이 볼 수 있도록  
한 시설'이고, 독서실은 '책을 읽거나 공  
부를 할 수 있도록 따로 차려 놓은 방'이  
다. 대학생들에게 도서관은 '도서관'이라  
기보다는 '독서실'에 가까운 셈이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준비를  
위한 공부를 목적으로 도서관을 방문하  
는 학생 비중이 급격히 커졌다. 대학 4  
학년생의 경우 '취업 준비를 위해 도서관  
을 찾는다'는 응답은 24.7%로 1학년  
(3.2%)의 약 8배, 2학년(5.9%)의 약 4배

에 달했다.

대학생들은 도서관 이용시 가장 큰 장  
점(복수응답)으로도 '도서 구입비용을 아  
낄 수 있다' (57.4%)보다 '면학 분위기 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  
(58.6%)를 꼽아 도서관이 곧 독서실이라  
는 대학생들의 인식을 가늠케 했다.

이 같은 인식은 대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꼴불견  
(복수응답) 순위에서도 드러난다. 대학생  
들이 꼽은 도서관 꼴불견으로는 끊임 없  
이 속삭속삭 거리는 '투머치토키'  
(54.4%)로 나타났고, 이어 자리만 맡아  
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족' (37.4%), 벨  
소리, 전화통화로 시끄러운 '휴대폰 비매  
너족' (33.7%), '애정행각 커플'  
(31.3%), '도서 훼손러' (25.6%), '프로떡  
방러' (24.5%), '소음유발자' (23.5%) 등을  
꼽았다.

/한용수 기자

## 세종대 유성준 교수 딥러닝 투자기술 논문 국제학술지에 게재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컴퓨터공  
학과유성준교수(사  
진)가 주도하는 연구  
진이 '딥러닝 기반투  
자 포트폴리오를 구  
축하는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논문을 지  
난 10월 국제학술지  
인 저널오브 슈퍼컴퓨팅(The Journal o  
f Supercomputing)에  
게재했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지원  
하는 ICT 융합산업  
원천기술개발 사업  
을 수행 중인 유 교  
수 연구진은 자가진  
화형 인공지능 투자  
기술 개발 과제를 지  
원 받아 해당 논문  
을 발표했다.



/한용수 기자

## 성균관대 LINC+ 사업단 'UNIC 혁신성장 컨퍼런스'

내달 5일 코엑스에서 개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산업·대학의 혁신전략을 진단하는 '성  
균관대학교 UNIC 혁신성장 컨퍼런스  
2018'(UNIC 2018)'이 오는 12월 5일 서  
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18일 성균관대에 따르면, 성균관대 산  
학협력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  
역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UNIC(산학협동조합)을 운  
영해 왔다.

성균관대 산학협력의 핵심 추진체인  
산학협동조합은 현재 지역산업 수요에  
기반해 6개 특화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기술, 가상공학해석(CAE), IoT, 스  
마트팩토리, 3D프린팅, 바이오코스메  
틱)를 운영 중이다.

내달 5일 개최되는 UNIC 2018에서는  
국내 관련 정부 부처와 글로벌 기업, 전문  
기업 등 핵심 싱크탱크들이 대거 참여해  
대학과 지역사회, 지역산업 간 협업을 통  
한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발표할 예정  
이다.

성균관대 최재봉 교수가 시장 혁명을  
주도하는 신인류 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와 이와 관련한 4차 산업혁명 대  
응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며, 4차산업혁명  
위원회 최영해 지원단장이 정부의 실질적  
인 4차 산업혁명 지원 계획을 발표한다.

아마존의 윤석찬 에반젤리스트는 빅데  
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아마존  
의 4차 산업혁명 대응사례를 공유할 계획  
이며, 우수한 산학협력 활동을 한 UNIC  
멤버십 기업들을 대상으로 UNIC 어워드  
2018도 함께 진행된다.

/한용수 기자